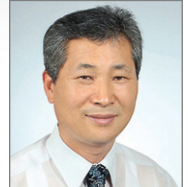


전기협회에 바란다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영리, 비영리 단체가 있다. 우리 전기관련 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관련 단체들이 각자 사업목적 을 가지고 출범하여 우리 전기분야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간 이마지한 공로 또한 매우 크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단체들간에도 사업의 확장 및 활동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유관 단체간에 중복된 업무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다소간의 마찰도 있는 듯하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율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급변하는 21C 시대의 정신에 맞게 우리 전기업계도 지식에 기반을 둔 정보화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전력공사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해외마케팅 업무추진 등의 업무를 그 동안 각 발전사 마다 개별 추진하던 것을 “ONE-KEPCO”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중복업무로 인한 비용 및 인력손실을 배제하고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전기관련 단체들도 중복업무를 배제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중심에 대한전기협회가 서 주기를 바란다.

대한 전기협회는 1965년 설립하여 4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및 전기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전력신기술 발굴 및 관리는 물론 전력산업의 단체표준인 KEPIC규격(전력산업기술기준)의 제·개정관리, 전기계를 책임질 인재양성 등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협회의 이 같은 노력으로 우리 전기산업은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번째로 원자력발전소 수출국으로 우뚝 서는데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기술과 제품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하게 인정 받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 기술과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판로 확대의 시점에 도달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기 위해 관련 기업들과 단체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길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한다.

이제 우리 전기산업이 국내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보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기협회를 중심으로 우리 규격을 국제화 하는 노력은 물론 기술위위, 표준화 선점 등을 통한 국산 제품의 국제화에 보다 욱 매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기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발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각 단체간 중복된 업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조정의 역할도 요청되고 있다. 전기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선진화 방안을 정립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 중심에 전기협회가 서 주기를 기대한다.